

“한국해운조합 노동조합 발전의 굳건한 소명의식으로 동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국해운조합 노동조합 조합원 동지 여러분!

동지 여러분들께 한 번 더 헌신하겠다는 확고한 소명의식으로
제17대 한국해운조합 노동조합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위원장 후보 김지현,
수석부위원장 후보 천길효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세계역사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촛불혁명을 이루어
냈습니다.

국민들은 스스로가 나라의 주인임을 철저히 만끽하였고,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권력이 어떤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가를 역사에 새겼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에서도 시대가 지향하는 정신을 뼈 속 깊이 담아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한국해운조합 노동조합 15대 위원장에 당선되어 우리 조합원 모두가 마땅
히 찾아야 하고 또 마땅히 누려야 할 권익을 위해 힘써 일하고자 하는 일
념으로 선봉이 되겠다고 선언한지 벌써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동안 조합원들이 위임해준 권한은 오직 조합원 동지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섬김의 자세를 되새겼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영에 대
한 강도 높은 성찰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동지들 앞에 다시 서면서 저희는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했다는 자랑보다
는 어떤 원칙으로 일을 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동지 여러분들에게 밝히고
자 합니다.

저희는 조합원 동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최우선의 사업목표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선도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동지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저희를 원한다면 기꺼이 찾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일을 동지 여러분들과 협의하고 사업수행의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업무기조는 그동안에도 일관되게 실천한 원칙이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저희는 노동조합의 결속을 다지고 어려운 경제위기를 노사가 함께 극복하기 위하여 초심으로 돌아가 민주적이고 서로가 상생을 이룰수 있는 노동조합으로 재무장하고 조합원에게 신뢰받는 노동조합으로 재탄생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며,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간의 부단했던 노조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지만큼의 성과는 다가오지 않았고, 각자의 안위만 걱정하는 사고방식으로는 우리의 자리를 제대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어려운 해운시장의 환경속에서 사업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인건비 삭감 및 구조조정을 원하는 일부의 세력과 맞부딪혀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이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음에도 공공연하게 구조조정의 말

들이 대수롭지 않게 떠돌아 다니는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조합과 노동조합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부의 행태를 더 이상 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현장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사측과의 정책적 협의에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계약직원의 정규직화, 직종간 차별해소를 위한 직종통합 등을 통해 사측과 내실있는 정책 협조에 의미있는 진척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존중의 가치를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구체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를 꽃피워 온 노동정치의 패러다임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앞장서서 노동조합이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빨리 가는 방법보다는 '더불어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한명이 걸어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명이 함께 하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동지 여러분들과 더불어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서 비겁하게 나의 안위를 걱정하기 보다는 우리 모두가 한사람, 한사람 힘을 합칠 때, 머리를 맞대어 우리의 목소리를, 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할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단결이 우리의 힘이 되고 이러한 우리의 힘이 조합원 동지 모두의 삶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함께하는 노동조합, 더불어 승리하는 노동조합, 자랑스러운 노동조합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이 한 알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번 제17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는 그 어느 해보다 노동조합의 미래뿐만 아니라, 해운조합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노조원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중요한 결단이고,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모든 시급한 일들을 위해서 저 하나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닌 조합원 동지를 위해서 많은 고민과 또 큰 결심으로 이 자리에 설 용기를 낸 저에게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조합원 여러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부서별 간담회 및 직종별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조합원 개인 면담을 통해 소중한 목소리 하나하나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동지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모두가 상생하고 화합할수 있는 교두보 꼭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적극적인 노동조합으로, 정말 우리 노조원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크고 작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모두 함께 나누는 그날을 위해서 저에게 힘을 보태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다시한번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2. 5.

제17대 한국해운조합 노동조합 위 원 장 후보 김지현
수석부위원장 후보 천길효

공약사항

I.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권익 쟁취

- 임금피크제 철폐, 65세 정년연장 추진
- 근로기준법 미준수사항 개선을 통한 규정 명문화
- 고용안정 쟁취 및 노동3권 실태 점검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II. 노동조합 변화와 혁신

-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조합, 소통과 화합하는 노동조합
- 선진노동 함양을 위한 지회간 연대강화 활성화
-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및 조합원 결속 프로그램 강화
- 노동조합과 조합의 상생을 위한 신사업 발전 위원회 설립

III. 조합원 중심의 사업목표 실천

- 상시적 청원제도 도입을 통한 사업목표 수행
- 부서별·지회별·직종별 간담회 및 1대1 조합원 면담 등 맞춤형 소통 실시
- 사업목표 수행 및 애로사항 등 추진사항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 도입
- 인사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혁신위원회 설립

IV. 노동교육 활성화로 노동의식 강화

- 노조집행부 정기적 교육 실시 및 선진노동환경 연구회 구축
- 찾아가는 노동교육으로 노동의식 강화
- 노동소식지 정기적 발간 및 정보 교류의 장 마련